고난도에 수험생 당혹…과탐서 변별력 커져

모의고사 보다 어려운 수능에 "뒤통수 맞았다"

진학교사들 "가채점 고려 정시보단 수시에 올인"

수능 가채점 반응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3일, 광주지역 고3 교실 분위기는 침울했다. 학생들은 가(假)채점한 뒤 책상 위에 털썩 얼굴을 묻는가 하면, "시험 망쳤다"며 울음을 터트리는 학생들까지 나왔다. 교사들은 학생을 다독이고 위로하느라 바빴다.

◇"희망 고문", "뒤통수 맞았다"=수능을 치른 고3 교실 분위기는 크게 두 갈래였다. 예상보다 어려운 시험으로 평소보다 낮은 가채점 결과를 받은 '충격', '쉬운 수능'이라던 교육당국 방침과 맞지 않는 어려운 시험 문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나뉘었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수능, 올 6·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방침을 줄곧 밝혀왔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당국의 '쉬운 수능 기조'라는 '신호'에 따라 고난도 문제 풀이에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 비슷한 유형의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런 예측은 빗나갔다. 학생들은 '뜨거운 물' 수능이라거나 "물수능이라면 나는 물난리났다. 홍수다", "맞긴 맞다. 물수능. 익사할 뻔했다", "물에 독극물 탔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학생들은 애초 공언했던 방침과 달리 난도를 지키지 않은 교육부에 대한 비판과 배신감을 온라인 상에 토해냈다.

수험생 뿐 아니라 교육부 방침에 맞춰 학생들을 지도한 교사들 사이에서도 "배신당한 기분"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현장은 훨씬 더했다. 평소보다 낮게 나온 '충격적'인 가채점 결과를 받아든 학생들은 막막한 듯한 표정으로 망연자실했다. 가채점 결과를 파악한 뒤 울음을 터트리는 학생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절대평가화' 이후 줄곧 쉽게 출제됐던 영어 영역이 갑자기 뒤집어진 데 따른 충격파도 심했다.

배영무 광주여고 교사는 "예상 밖 난도로 인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은 학생이 나오는 등 분위기가 침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금란 금호고 교사는 "예상 밖의 시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다독이고 있다"면서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탐구 영역에서 변별력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위권 변별력 커지고=광주지역 일선 교사들은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위권의 경우 교육당국의 '시그날'에 맞춰 쉬운 수능을 준비했던 탓에 난도가 올라간 시험에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당혹감을 느꼈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전언이다.

박종모 광덕고 교사는 "난도가 올라갔지만 모두 다 어렵기 때문에 예상 점수가 낮다고 해서 낙담하기 이르다"면서 "가채점 결과가 낮게 나온 학생들의 경우 낮은 성적에 대한 불안감, 정시 모집 인원이 줄어든 점까지 고려해 수시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상훈 대동고 교사도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진 '쉬운 수능' 기조 속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난도의 시험이 출제되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학생들에 비해 재수생 강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지만, 전년도 이후 쉬운 수능만 접했던 점 등으로 비슷할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는 몇등급?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난 13일 조대여고 3학년 학생들이 가채점표와 입시학원 등에서 내놓은 등급표로 자신들의 등급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내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학과(광주 진학부장협의회 분석)

▶2016 수능 가채점 참고자료-인문계열

대학	모집군	모집단위	정원	배치점수
서울대	가	경영대학	78	396
	가	사회과학계열(광역)	93	394
	가	인문계열(광역)	46	392
	가	영어교육과	10	391
	가	농경제사회학부	21	390
	가	국어교육과	10	389
	가	역사교육과	12	389
	가	사회교육과	12	388
	가	소비자아동학부	17	387
	가	지리교육과	12	387
연세대	나	경영학과	94	392
	나	경제학부	69	391
	나	언론홍보영상학부	16	389
	나	행정학과	25	388
	나	정치외교학과	27	388
	나	응용통계학과	20	387
	나	사회학과	13	387
	나	영어영문학과	24	387
	나	교육학부	17	386
	나	국어국문학과	15	386
고려대	나	경영대학	75	391
	나	정치외교학과	16	390
	나	경제학과	29	390
	나	행정학과	18	389
	나	통계학과	16	388
	나	국어교육과	15	385
	나	영어교육과	14	385
	나	영어영문학과	22	385
	나	사학과	16	384
	나	교육학과	18	383
	나	역사교육과	11	383
서강대	가	경영학부	86	385
	가	경제학부	80	384
	가	사회과학부	23	384
	가	커뮤니케이션학부	28	384
	가	영미문화계	15	382
	가	유럽문화전공	10	380
성균관대	가	글로벌경영학	20	386
	가	경영학	45	382
	가	사회과학계열	60	380
	가	인문과학계열	70	379
	나	글로벌경제학	15	385
	나	글로벌리더학	15	385
	나	경영학	35	384
	나	사회과학계열	70	381
	나	인문과학계열	60	380
	나	교육학	5	379
	나	의상학	4	378
이화여대	가	의예과	6	396
	가	초등교육과	13	382
	가	사회과학부	106	379
	가	영어교육과	13	379
	가	경영학부	45	378
	가	국어교육과	7	377
	가	영어영문학전공	16	376
	가	인문과학부	111	375
	가	교육학과	11	375

▶2016 수능 가채점 참고자료-자연계열

대학	모집군	모집단위	정원	배치점수
서울대	가	의예과	25	393
	가	화학생물공학부	22	388
	가	생명과학부	10	385
	가	수리과학부	7	384
	가	기계항공공학부	38	384
	가	컴퓨터공학부	14	383
	가	건축학과	10	381
	가	생물교육과	15	381
	가	의류학과	10	380
	가	간호대학	21	378
연세대	나	의예과	22	392
	나	치의예과	12	390
	나	화공생명공학부	28	382
	나	생명공학과	18	381
	나	생화학과	7	381
	나	전기전자공학부	68	380
	나	수학과	11	380
	나	기계공학부	40	379
	나	건축공학과	26	377
	나	도시공학과	11	377
고려대	나	의과대학	13	395
	나	생명과학부	17	380
	나	전기전자공학부	32	378
	나	수학교육과	5	377
	나	신소재공학부	24	377
	나	화학과	8	376
	나	기계공학부	24	376
	나	수학과	8	376
	나	지구환경과학과	5	375
	나	컴퓨터학과	21	374
	나	식품공학과	8	374
서강대	가	화공생명공학전공	36	371
	가	수학전공	10	370
	가	화학전공	10	369
	가	생명과학전공	9	369
	가	기계공학전공	25	368
	가	전자공학전공	36	368
성균관대	가	반도체시스템공학	10	379
	가	수학교육	5	368
	가	자연과학계열	40	366
	가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40	365
	가	공학계열	100	365
	나	의예	8	390
	나	소프트웨어학	5	379
	나	자연과학계열	40	368
	나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40	367
	나	공학계열	70	366
	나	컴퓨터교육	5	360
이화여대	가	의예과	22	386
	가	수학교육과	7	367
	가	뇌인지공학전공	5	365
	가	과학교육과	40	363
	가	화학신소재공학부	18	363
	가	화학생명분자과학부	52	362
	가	컴퓨터공학과	26	362
	가	수리물리과학부	38	360
	가	간호학부(인문자연)	25	360

오늘의 날씨

해뜸 07:07 해짐 17:26 달뜸 10:44 달짐 21:22

우산 챙기세요

차차 흐려져 낮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 10~30㎜.

◇ 지역별 날씨 (℃)

광 주	차차흐려져비	10/16	보 성	차차흐려져비	8/15
목 포	흐리고 비	10/16	순 천	차차흐려져비	11/17
여 수	차차흐려져비	13/16	영 광	차차흐려져비	9/16
나 주	차차흐려져비	9/16	진 도	흐리고 비	9/17
완 도	흐리고 비	10/17	전 주	차차흐려져비	11/16
구 례	차차흐려져비	8/16	군 산	차차흐려져비	10/14
강 진	흐리고 비	8/16	남 원	차차흐려져비	7/15
해 남	흐리고 비	8/16	흑산도	흐리고 비	12/16
장 성	차차흐려져비	8/15			

◇ 바다 날씨

		오전 풍향	오전 파고(m)	오후 풍향	오후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먼바다	동~남동	0.5~1.0	남~남서	0.5~2.0
남해서부	앞바다	동~남동	0.5	남~남서	0.5~1.0
	먼바다(동)	동~남동	0.5~1.0	남~남서	0.5~1.5
	먼바다(서)	북동~동	0.5~1.0	남~남서	1.0~1.5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4:34	09:45
	17:14	22:25
여수	11:45	05:04
	23:51	17:54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낮음
체감온도	관심

◇ 주간 날씨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13/17	13/16	11/14	9/16	7/18	10/18	12/15

31사단 부대명, 지역 호국영웅 이름 쓴다

20곳 교체키로…광주 서·남구대대→충렬공 고경명대대로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시호를 딴 '충장부대'(육군 31보병사단)가 예하부대도 지역 출신 호국영웅의 이름을 딴 부대명으로 바꾸고 있다.

육군 31보병사단(사단장 권혁신 소장)은 20개 예하부대의 상징 명칭을 광주·전남 호국영웅들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서·남구대대'는 '충렬공 고경명대대'로, '나주대대'는 '김천일대대'로 부대이름을 바꿨다.

'담양대대'는 '녹천 고광순대대'로 변경했다. 고광순은 담양 출신의 한말 의병장으로, 1895년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자 이에 통분해 의병을 일으켜 화순 동복, 구례 등에서 일본의 침략에 항거했다.

'여수대대'는 '좌수영대대'로, '해남대대'는 '이순신대대'로 명칭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31사단은 "자칫 잊힐 수 있는 광주·전남지역 호국영웅들을 상기하고, 그 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본받아 부대원들의 호국의지를 선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향토부대의 위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남대, 사법시험 3명 최종 합격

전남대가 올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3명을 배출했다.

법무부는 올해 치른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3차 시험 불합격자 1명을 포함해 3차 시험에 응시한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 성별로는 남자 94명(61.4%), 여자 59명(38.6%)이다. 최고 득점은 한양대 재학 중인 천재필(31)씨, 최연소는 서울대에 다니는 홍광범(22)씨가 차지했다.

대학별 합격자는 연세대가 22명(14.38%)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19명), 서울대(15명), 이화여대(13명), 한양대(11명)가 뒤를 이었다.

전남대는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강청일·김현중(이상 08학번)씨와 졸업생인 김선남(04학번)씨 등 3명이 최종 합격했다. 전남대는 지난 2011년 제53회 때 16명(707명 중)을 합격자 명단에 올렸고, 2012년 3명(506명 중), 2013년 4명(306명 중)의 합격자를 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